

(주)선경 '95 캐논 딜러미팅 개최로 캐논카메라 국내 판매 본격 개시

(주)선경 개발사업본부에서는 지난 6월 13일, 조선포텔에서 '95 캐논 딜러 미팅'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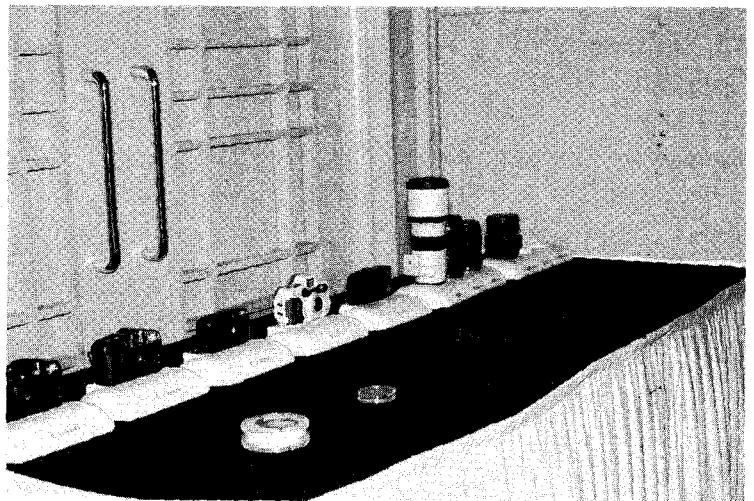
선경의 캐논카메라 국내 판매에 즈음하여 열린 '95 캐논 딜러미팅'에는 일본 캐논사의 타지마 상무, 아다치 부장, 선경의 송무희 전무, 김영환 이사를 비롯, 40여개의 대리점 사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캐논의 세계시장 현황(캐논 아다치 부장) 및 선경의 캐논카메라 영업정책(선경 구연호 부장)이 발표되었다.

이날 열린 '95 캐논 딜러미팅'에서 일본 캐논의 아다치 부장은 '지난해 캐논은 2백억불의 매출액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선경과의 협력으로 한국시장에서 캐논카메라의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올해의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아다치 부장은 '캐논은 최근 카메라 수요가 활발히 증대하고 있는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및 남미 등의 신규시장 개척을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 (주)선경, 개발사업본부에서는 지난 6월 13일 조선포텔에서 '95 캐논 딜러미팅'을 개최했다.



▲ '95캐논 딜러미팅'에서 소개된 캐논카메라와 사진관련 악세서리

한편, 지난 3월 29일, 캐논 카메라의 국내 판매계약을 체결한 선경 개발사업본부 캐논 팀 구연호 부장은 '캐논의 프리마 줌 70F를 비롯한 카메라 6종, 렌즈 45종 및 카메라 관련악세서리 250여종을 중심으로 국내 그레이 마켓(Grey

Market)에서의 경쟁력 제고와 대리점 단일 유통체계 운영을 통해, 향후 경쟁사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구연호 부장은 '현재 40개 대리점을 중심으로 시장별, 지역별 캐논카메라 전문대

리점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아울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1개 지역에 애프터서비스망을 확보해 캐논 카메라의 지역별 서비스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현대전자산업(주), 신제품 복사기, VELOZ 5022시리즈 4기종 출시

현대전자산업(주)는 지난 6월 19일, 서울 보람상호신용금고 15층에서 복사기 신제품 4기종(VELOZ-5022/5027/5130/5130S)을 발표했다.

올해로 복사기사업 5주년을 맞이하는 현대전자는 올해 국내복사기시장에서 10%의 점유율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분

당 복사속도 22매/27매/30매의 4가지 모델을 출시하는데 이어 8월 중순경에는 분당 복사속도 35매의 고급기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현대전자는 '오는 11월에는 분당 복사속도 14매의 보급기와 50매의 고속기를 출시, FULL LINE-UP으로 국

내 복사기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지난 6월에 선보인 현대전자의 복사기 VELOZ-5022시리즈는 기존 중·고급기종과 차별되는 생산성, 신뢰성, 조작성, 서비스 및 환경보호부분의 5대기능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VELOZ 5022/5027/5130/5130S 사양

기종	VELOZ-5022	VELOZ-5027	VELOZ-5130	VELOZ-5130S
형식	DESK TOP			
감광체종류	OPC DRUM			
복사크기	A3			
복사속도	분당 22매	분당 27매	분당 30매	분당 30매
최초복사시간	4.1초			
복사배율	ZOOM 50~200%, 4단확대/4단축소 고정배율			
급지방식	2단카세트+수동급지대=1,050매 OPTION장착으로 2,050매까지 확장 가능			
기타			부문관리카운터 기본장착	부문관리카운터 SORTER 기본장착

VELOZ 5022시리즈의 주요특징

특 징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에 철저히 배려한 설계 • 조용한 사무환경을 배려한 설계 • 최소폭 60cm의 공간절약 설계 • 최대 2,050매의 급지 용량 자랑 • 폭넓은 ZOOM배율 50%~200% • 가장 빠른 최초 복사속도 • 복사작업을 편리하게 하는 4대 AUTO기능은 복사작업을 충실히 뒷받침해 준다. • 100% 원고 교환율로 고생산성 실현 • UNIT 설계로 손쉬운 유지보수 	<p>오존발생량을 기존 복사기의 1/2로 줄였으며 플라스틱 소재의 재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포장재의 스티로폼 양을 줄여 필요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했다.</p> <p>복사시 동작음이 국내 최소 수준인 47dB(VELOZ-5022/5027/5130), 49dB(VELOZ-5035)로서 조용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한다.</p> <p>쾌적한 사무환경은 복사기 점유면적의 축소를 필요로 한다. 동급 최소폭 60cm는 사무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p> <p>기본 급지량 1,050매에 OPTION인 2단급지 DESK를 장착하면 최대 2,050매의 급지량을 자랑한다. 대량 복사시 자주 용지를 갈아 끼우는 번거러움을 업에 사무능률을 향상 시킨다.</p> <p>50%~200%까지 폭넓은 ZOOM 배율로 창조적인 작업이 가능하다.</p> <p>FIRST COPY 4.1초 (VELOZ-5022/5027/5130), 3.1초 (VELOZ-5035)로서 빈번한 복사작업이 필요한 사무실에 빠른 복사작업을 가능하게 한다.</p> <p>원고크기를 자동 감지하는 원고크기 자동감지기능, 용지에 맞추어 배율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자동배율계산기능, 복사하고자 하는 배율에 맞추어 용지를 선택하는 자동용지선택기능, 한 카세트에 용지가 떨어지면 다른 카세트의 용지를 자동 급지하는 자동카세트 전환기능</p> <p>RADF사용시에도 분당 복사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동일한 복사속도 유지</p> <p>제품이 단위별로 UNIT 설계로 되어 있어 기계 유지보수시에 보다 쉽게 교환할 수 있어 유지보수시간을 최소화 시킴.</p>

한국광학기기협회, 광학산업발전방향 정책수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광학기기협회(회장, 김주용)에서는 지난 6월 1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광학산업 발전방향 정책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통상산업부 산업기계과 김동철 과장, 홍구학 사무관이 그리고 업계

에선 삼성항공산업(주) 이상순 상무, 현대전자산업(주) 강남훈 상무, (주)브이.텍 이재선 사장, 부원광학(주) 박춘봉 사장 등 12개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광학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통상산업부 김동철 과장은 이날 참석한 광학업계 관계자들에게 △ 자본재산업의 주요 내용 및 광학산업 관련사항 △ 광학산업의 중장기 발전 비전 수립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관련업계의 상호협조를 당부했다.



▲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광학산업발전방향 정책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전자 강남훈 상무는 '효과적인 자본재개발 및 국내 광학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업계간 컨소시엄을 구성, 부품의 공용화를 추구해야 함은 물론 중소부품가공업체들이 전문화할 수 있도록 세트메이커들의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학가공기기 전문메이커인 시대정공사 조희대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기업육성책에 대한 수혜층이 영세한 렌즈연마업체들에 이르기까지 그 층이 두터워졌으면 한다'며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국내 광학렌즈 가공 및 기계제작업체들의 현 실정에 대한 설명과 이들 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광학기기협회 홍계인 전무는 이날 간담회에서 '광학기술 없이는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강조, 광학업계에 대한 정부의 금융 및 기술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